

주걸륜(周傑倫)의 “你可以不平凡” 강연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나민구* · 배경진**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착상
 - 1) 수사적 상황과 연결자 분석
 - 2) 논거 찾기
3. 배열
 - 1) 들머리
 - 2) 알거리
 - 3) 밝히기
 - 4) 마무리
4. 표현
5. 압기
6. 발표
7.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수사학’은 말을 꾸민다는 의미 이외에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 말을 쓰는 기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공공연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수사학은 설득에 관한 최초의 학문이자 이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수사학을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설득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 석사과정

의 모든 방법을 관찰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한다.¹⁾ 수사학이 설득을 위한 기교에만 국한된 것으로 혹은 케케묵은 옛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언어를 이용하여 설득하는 일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사에 필요한 것이기에 오늘날의 연구에서도 의미를 둘 수 있다.

화자 중심의 수사학을 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학은 “훌륭한 말재주”에서 “훌륭한 분석재주”로 나타나게 된다.²⁾ 화자는 수사규칙을 이용하여 말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청자는 그 규칙을 이용하여 말의 훌륭함을 따져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훌륭함이란 윤리적인 의미와 기술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지금은 주로 기술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수사학의 효과목표인 설득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청자의 입장에서 본 수사학은 말의 설득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³⁾

본고는 이런 입장에서 수사학을 강연 분석에 응용해 보려고 한다. 즉, 수사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중국의 강연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는 주걸륜(周傑倫)의 2013년 4월 22일 북경대학교 백년강당(百年講堂)에서 열린 “你可以不平凡(범생일 필요 없어)” 강연을 선정하였다.

연설의 실제 동영상 자료는 www.youtube.com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텍스트는 ‘바이두(百度)문고(文庫)’에서 배포한 전문을 대상으로 한다. 강연 동영상 전체 소요시간은 총 15분 5초이며, 텍스트는 3199개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고, 총 21개의 단락을 형성하고 있다.

북경대학교에서 행한 여러 유명 인사들의 강연 중, 周傑倫의 “你可以不平凡” 강연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보통 북경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강연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저명인사들로 소위 손꼽히는 ‘말재주꾼’들에 한정되어 있지만, 연예인으로써 이런 전례를 깨고 강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눈여겨 볼만하다. 둘째, 周傑倫은 누구나 인정하는 중국 연예계의 대스타로서 충분히 사람들

1) 나민구·최형권, 「시진핑(習近平) 연설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中國研究』 第60卷, 2013년, 129쪽 참조.

2) 수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키타리우스(M. F. Quintilianus, 35?~96?)의 수사학에 대한 정의이다. 양태중,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도서출판 동인, 2002년, 10쪽 참조.

3) 양태중,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도서출판 동인, 2002년, 325쪽 참조.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지위가 된다고 본다. 학력을 중시여기는 중국사회에서 고졸에 불과한 그가 중국의 일류대학교 강단에서 젊은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여, 청중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한 점에서도 충분히 수사학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5개영역인 ‘착상(invention)’, ‘배열(disposition)’, ‘표현(elocution)’, ‘암기(memory)’, ‘발표(action)’ 순서에 따라 그 특징을 분석한다. 착상은 논리적인 증거를 찾는 아이디어 창출 과정이고, 배열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잘 나열해 내는 과정으로 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한다. 표현은 수사법을 이용하여 묘사하는 과정으로서 문체론(style)으로 발전한다. 암기는 앞 세 가지 과정을 머릿속에서 잘 기억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발표는 목소리와 몸짓을 사용하여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⁴⁾

본고는 이런 수사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周傑倫이 강연에서 보여주었던 설득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도출하기로 한다.

연설 텍스트를 수사학적으로 분석한 그동안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재원(2013)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연설문을 키케로(M. T. Cicero)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범수·김민영(2006)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의 연설텍스트를 수사적 체계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문 분석 외에 국외 대통령들에 대한 연구도 현재 국내 수사학 연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민구·이지은(2014)은 중국 지도자 연설 텍스트의 연구로 후진타오(胡錦濤) 2013년 신년연설에 대해 수사학적인 분석을 하였다. 또한, 박성희(2009)는 대통령 취임연설의 제의적(Epideictic) 특성의 수사적 분석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분석하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연설문 연구는 국외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가까운 중국을 살펴보면, 馬立傑(2013)가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 연설문을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설문 연구에는 주로 정치나 경제, 사회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4) 나민구, 『중국수사학』, 한성문화, 2006년, 141쪽 참조.

있다. 연예인은 직업의 특성상 연설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적 분석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본고는 연설에 대한 수사적 연구라는 공통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예인의 강연 텍스트에도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착상

착상은 수사학의 영역 중 첫 번째 영역으로, 연설가가 전달 하고자 하는 이슈의 논리적 증거를 찾는 기술이다.⁵⁾ 본고는 주결륜의 강연에서 먼저 그가 어떤 동기로 연설을 하고 있으며, 청자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등의 수사적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한다.

1) 수사적 상황과 연설자 분석

본 강연은 중국방송 CCTV-1채널에서 방송하는 “開講啦”라는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특집으로 진행된 것으로, 북경대학교 백년기념강당에서 열렸다. 2013년 4월 22일 저녁은 원래 주결륜이 새 영화 <天臺>를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천성 지진 참사로 인해 영화홍보는 잠시 접어두고,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전달하기 위한 강연을 하기로 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사천성 지진 피해에 대한 우울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이날 주결륜은 평소와는 다르게 화려하지 않은 검은색의 절제된 복장으로 강연장에 나왔다.

먼저, 연사인 주결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는 79년 대만에서 태어나 현재 가수이면서 작사 및 작곡도 하고 있으며, 영화배우이자 뮤직비디오와 영화감독, 편집 및 제작까지 겸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재주꾼이다.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강연 내용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5) 키케로(M. T. Cicero, BC 106~ BC 43)의 착상에 대한 정의. 양태종(2009:75) 참조.

[단락3] 我沒有考上大學。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락5] 我又很愛打球, ~ 可能就是有一種運動細胞吧。
공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마도 운동신경이 있었던 것이겠
죠.

[단락6] 如果那時候沒有學琴, 我現在怎麼拍〈不能說的秘密〉對吧?
만약 그 당시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영화〈말할
수 없는 비밀-不能說的秘密〉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那時候如果不喜歡看這些武術的電影, 我怎麼拍〈青蜂俠〉對吧?
그 당시 만약 그런 무술 영화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영
화〈그린 호넷-靑蜂俠〉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락8] 這代表說我是一個很怎麼樣的人? 很愛面子。愛面子呢, 又好
勝。
이것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요? 굉장히 체면을 따져요. 체면
을 따지는데다가 승부욕도 강하지요.

[단락20] 那也是爲什麼我喜歡變魔術的原因。
그것 또한 제가 마술을 좋아하게 된 이유입니다.

상기 그의 강연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주걸륜은 ‘愛面子(체면을 차리다)’, ‘好勝(승부욕이 강하다)’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체면을 중시 여기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런 성격을 바탕으로 평범함에서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던 요소가 됨을 보여주었다. 어려서부터 음악과 운동, 마술을 좋아했던 그는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음악이나 연기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기에, 영화〈말할 수 없는 비밀-不能說的秘密〉(2007)도 성공적으로 흥행시킬 수 있었고, 무술영화를 좋아했기에〈그린 호넷-靑蜂俠〉(2011)도 찍는 등,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몇 가지의 특징을 살려서 자신의 일에 잘 접목시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성공에 이른 사람임을

엇 볼 수 있다.⁶⁾

연설의 유형에는 '법정 연설, 정치 연설, 식당 연설'로 청중의 태도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중의 태도를 적극적 태도와 수동적 태도로 나누고 다시 이 태도를 시간과 장소와 관련해서 연설의 종류를 구분한다. 청중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연설의 경우 청중의 판단이 과거에 혹은 미래의 일과 관련되는데 이 판단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면 법정 연설, 민회에서 이루어지면 정치 연설로 나뉜다. 청중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의 일을 두고 즐기는 태도만 있는 경우 식당연설에 해당된다.⁷⁾ 연사와 다수의 청중이 상호 작용하는 주결륜의 강연은 의사소통의 발화를 통해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화용론과 별개일 수 없기 때문에, 주결륜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자신의 의도와 목표가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텍스트의 의도에 따라 구분되는 연설 유형에 의하면, 본고에서 분석하는 주결륜의 강연은 진실 규명 등에 대한 법정 연설의 태도와 취임 연설 등의 식당 연설이지만, 그 중 청중의 득과 실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은 정치적 연설의 특징을 나타낸다.

2) 논거 찾기

정치적 연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판단과 함께, 그것이 청중에게 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연설은 정치 연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⁸⁾ 따라서 청중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제안들을 살펴본다면, 연사가 어떤 근거로 자신의 논리를 이끌어 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주결륜의 강연에서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단락들을 분석하여 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6) 강연자 이력은 강연 텍스트 및 사회자의 소개 내용에 근거함.

7) 나민구·최형권, 「시진핑(習近平) 연설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中國研究』 第60卷, 2013년, 133쪽 참조.

8) 백미숙, 「연설문의 들머리와 마무리 구조 분석」, 『독어학』 vol. 5, 2002년, 269쪽-270쪽 참조.

논거 찾기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연설자의 지향(指向)점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지양(止揚)점으로 나누어 분석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결륜의 강연내용에서는 지양점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고, 지향점에 대해서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주결륜은 청중들에게 “꿈(夢想)”을 가져야 한다며, ‘正能量’이라는 ‘긍정의 힘’, 즉 ‘긍정마인드’를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사실상 ‘~하지 마라’, ‘~면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이거나 금지하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단락3] 人都要有夢想，其實我跟大家一樣啊，我覺得自己就是非常平凡，只是學了點兒音樂而已。學了這些音樂呢，最後能夠站在這個舞台演講，也不容易啊。因為我沒有考上大學，但是我卻跟你們演講(周傑倫笑)，你們會不會覺得有點奇怪？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해요. 저도 여러분처럼, 제 자신이 사실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음악을 공부했을 뿐인데, 이렇게 음악을 공부한 것으로 이런 무대에 서서 강연을 한다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네요. 여러분이 보기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단락5] 所以我覺得厲害的人，我覺得不平凡的人，並不是書要念得多好，我覺得他要有一技之長。

그래서 제 생각은 대단하거나 비범한 사람이 공부를 잘 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잘 하는 특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락23] 在這邊鼓勵大家就是，找尋自己的那一點跟大家的不一樣，去把它放大。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남들과는 다른 바로 자신의 장점을 찾아 그것을 펼쳐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강연의 주제로 좀 더 폭 넓게는 ‘夢想’, 즉 ‘꿈’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꿈’을 가져야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하였다면, 청중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 하였을 것이다. 그는 ‘我跟大家一樣(저도 여러분과 같아

요), ‘我覺得自己就是非常平凡(저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이라고 하며, 청중과 같은 입장임을 밝히면서 눈높이를 같이 하였다. 그런 평범함 속에서 단지 좋아하는 음악을 공부했을 뿐이고, 전문적으로 대학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일류대인 북경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꿈’의 실현에 대한 신념을 갖도록 해 주었다. 그럼, 이런 ‘꿈’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꿈’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그는 논점에서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장점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한다’라는 조건을 들어서 ‘一技之長’이라는 주제어를 도출해 내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공부를 꼭 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며, 현재 공부에만 전전공공하는 젊은이들에게 시야를 좀 더 넓혀 자신의 장점을 찾아 개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주결륜은 이런 지향점들에 대해 다양한 자신의 경험들을 제시하여 강연의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실제로 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고, 전개해나갔기 때문에, 청중들에게도 그 만큼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3. 배열

배열에서는 ‘들머리-얼거리-밝히기-마무리’로 나누어 주결륜 강연텍스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들머리는 서론부분에 해당하고, 얼거리는 본론의 설명부분에 해당하며, 밝히기는 본론의 증명부분에, 그리고 마무리는 결론부분에 해당한다. 이 강연텍스트는 모두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락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⁹⁾

9) 배열(Disposition)은 연설문의 내용에 따른 단락 전개순서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론, 본론, 결론’의 세 가지 순서를 체계적으로 제안하였다. 본고는 양태종(2002)의 한국어 번역어 ‘들머리, 얼거리, 밝히기, 마무리’를 사용한다.

1) 들머리

들머리는 청중들의 호감사기, 관심 끌기, 이해 돕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청중들이 강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ice break’에 해당하는 초입부분이다.¹⁰⁾ 주걸륜 강연 24개 단락 중 [단락1]~[단락3]까지가 해당된다.

[단락1] 各位北大的同學們，你們好嗎？
북경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락1]에서 ‘各位~們’이라는 호칭과 인사로써 강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것은 청중의 분산된 이목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의사소통의 첫마디로 강연에서는 어떤 어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첫 인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단락2] 站在這個舞台開講，真的是不簡單，算是成功了哦。
이런 무대에 서서 강연을 하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성공한 셈인 거죠.

[단락2]에서는 이런 무대에 서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의 마음을 알리는 부분이다. 본인 자신은 평범한 사람인데, 대중 앞에 서게 되었음을 ‘成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유머러스하게 청중과 소통을 시도해보는 부분이다.

[단락3] 人都要有夢想，其實我跟大家一樣啊，我覺得自己就是非常平凡，只是學了點兒音樂而已。學了這些音樂呢，最後能夠站在這個舞台演講，也不容易啊。因為我沒有考上大學，但是我卻跟你們演講，你們會不會覺得有點奇怪？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해요. 사실, 저도 여러분처럼, 저 자신이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음악을 공부했을 뿐이고요. 이렇게 음악을 공부한 것으로 이런 무대에 서서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네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강연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보기엔 좀 이상하죠?

10) 양태중, 『수사학이 있다』, 유로서적, 2009년, 112쪽 참조.

[단락3]은 전반적인 내용의 암시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주길륜 본인은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무대에 서게 된 것이지만, 사실은 그 역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낮추고 청중들을 높여서 청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 얼거리

얼거리는 연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보통 연설의 대강을 설명하는 부분을 말한다. 주길륜의 강연에서는 [단락4]부터 [단락7]까지 얼거리에 해당된다.

[단락4] 方文山¹¹⁾也才讀過小學而已。不過，他寫的東西卻能夠到教材裏面。這時候是不是該來點掌聲啊？

방문산(方文山) 씨도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쓴 작품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었잖아요. 이 시점에서 박수 좀 나와 줘야하지 않을까요?

[단락5] 所以我覺得厲害的人，我覺得不平凡的人，並不是書要念得多好，我覺得他要有一技之長。本身呢，也要聽媽媽的話，尊師重道。那時候她(周傑倫媽媽)也希望我可以考上音樂系，然後讀大學。我大概考了兩次吧。可能我不是讀書的料，而且我又很愛打球，所以也不知道自己心理是怎麼搞的，可能就是有一種運動細胞吧。

그래서 제 생각은 대단하거나 비범한 사람이 공부를 잘 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잘 하는 특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본인도 엄마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따랐어야 했고 그 당시, 엄마는 제가 음악과에 시험을 봐서 대학가기를 바라셔서, 시험을 거의 두 번 정도 봤을 거예요. 제가 공부 쪽은 아마 아니었던 것이겠죠. 게다가 공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운동신경이 있었던 것이겠죠.

[단락6] 那其實我現在講的這些，都是我未來成功的一些關鍵，你想一想年輕時候，如果我被好好的關在那邊，我沒有去打球，我現在怎麼拍〈大籃

11) 方文山: 1969년 대만 출생. 유명 작사가. 주길륜 노래를 주로 작사함.

球)是吧? 如果那時候沒有學琴, 我現在怎麼拍〈不能說的秘密〉對吧? 那時候如果不喜歡看這些武術的電影, 我怎麼拍〈青蜂俠〉對吧?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저의 성공 포인트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만약 제가 한 쪽에 암전히 틀어박혀서, 공을 가지고 놀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영화 〈쿵푸덩크-大籃球〉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 당시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不能說的秘密〉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만약 그런 무술 영화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영화 〈그린 호넷-靑蜂俠〉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단락7] 這些呢, 都不是父母讓你去學的, 你是有自發性的, 你喜歡這樣的東西。所以, 我覺得人要有一技之長呢, 比學歷更重要。這個是我一直在跟這些小朋友講的。講到學生的階段, 因為今天是在學校嘛。其實我是一個蠻愛面子的人, 我覺得。相信大家看得出來, 一個很好勝的人。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시켜서 배운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좋아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장기가 꼭 하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입니다. 오늘은 학교에 왔으니 학창시절에 대해 말해보죠. 저는 굉장히 체면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여러분은 이미 제가 승부욕이 강한 사람으로 보실 거라 믿고요.

[단락4]는 [단락5]를 입증하는 예로, [단락5]에서는 앞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는 단락이 된다. 즉, 귀납법적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첫 문장에 ‘我覺得’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一技之長’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였는데, 이것으로써 전체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단락이기도 하다. 또한, 뒤에 내용은 다시 첫 문장을 뒷받침해 줄 예증이 도출되어 이 단락부터 다시 재분석해 보면, 연역적 방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단락6]에서는 성공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如果~’라는 가설을 세 번 반복하며, 〈쿵푸덩크-大籃球〉(2008), 〈말할 수 없는 비밀-不能說的秘密〉(2011), 〈그린 호넷-靑蜂俠〉(2008)라는 그의 성공을 알릴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으로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또한, [단락7]로 와서 다시 전체 열거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며, 강연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된다.

3) 밝히기

밝히기는 연설문에서 찾은 논거들을 가지고 연설자가 청중들에게 타당성을 원칙으로 논증해 가는 부분이다.¹²⁾ 주결륜 강연에서는 [단락8]부터 [단락22]까지가 밝히기에 해당된다.

우선, 원인에 대한 논증법을 살펴보면, Christian Plantin은 ‘원인에 의한 논증은 시간적으로 순서가 정해진 사건-유형 연속을 전제로 갖는다’라고 했다.¹³⁾ 주결륜 강연에서도 이런 원인에 대한 논증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一技之長’이라는 주제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밝히기에서는 본인의 성공과정을 실제로 겪었던 일화들을 제시하며 학창시절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설명해준다. 또한, 각각의 작은 일화들은 인과관계의 구성으로 비교적 통일성을 보였다. 단락별 구성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사이에 넣어 결과를 뒷받침 해주었다. 그 단락별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인”	→	(과정)	→	“결과”
[내용]	대학에서 떨어짐	→	곡을 쓰기 시작함	→	〈蝸牛〉가 탄생.
	자신이 쓴 노래를 부르는 이가 없음.	→	직접 노래함	→	〈雙接滾〉이 탄생.
	시상식에서 상을 못 탐	→	외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심리적 괴로움	→	〈外破〉가 탄생.

대부분의 일화는 위와 같이 인과관계를 단계별로 서술해 나갔다. 시상식의 일화에서 상을 타지 못하자 슬럼프에 빠져 반항적인 노래를 만들어 부르다가, 다시 일어나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탈바꿈을 한다. 그러던 중, 그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겨 다른 사람과 다른 그의 스타일을 찾다가, ‘中國風’이라는 자신만의 스

12) 양태중, 『수사학이 있다』, 유로서적, 2009년, 132쪽 참조.
 13) Christian Plantin 著, 장인봉譯, 『논증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년, 288쪽 참조.

타일을 구축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팬 층도 다양해지고 그 연령층도 넓어지며 인지도를 얻게 되고,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까지 뮤직비디오로 직접 펼쳐보며 촬영도 해보다가 영화감독까지 도전을 하게 된다. 이것 역시 위에서 제시한 ‘사건-과정-결과(성공)’의 패턴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연역 추론(삼단논법)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나갔다. 연역 추론이란 이미 알고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일반적인 명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명제를 이끌어 내는 사고 작용이다. 이끌어 낸 명제가 진리일 가능성을 따지는 귀납 추론과는 달리, 연역 추론은 명제가 참이나 거짓이냐를 문제 삼기 보다는 논리적 타당성, 명제들 간의 관계만을 문제 삼는다. 곧, 연역 추론은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도출된다고 여겨지는 논증 방식이다. 연역 추론을 대표하는 것이 삼단논법이다. 삼단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구성되고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¹⁴⁾

(1) 성공의 원칙 1

【대전제】 방문산씨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 이미 알고 있는 명제(참)

【소전제】 방문산씨의 작품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대단하다.

⇒ 이미 알고 있는 명제(참)

【결론】 대단하거나 비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학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 새로운 명제(참)

(2) 성공의 원칙 2

【대전제】 나는 성공했다. ⇒ 이미 알고 있는 명제(참)

【소전제】 나는 특기가 있다. ⇒ 이미 알고 있는 명제(참)

【결론】 특기가 있으면 성공한다. ⇒ 새로운 명제(참)

주결륜의 강의를 보면, 대전제는 결론의 술어개념인 대개념을 포함한 전제이고, 소전제는 결론의 주어개념인 소개념을 포함한 전제이며, 매개념은 두 전제에

14) 정재영, 『eduspa가 떴다, 국어2 비문학』, 박문각, 2012년, 16쪽 참조.

서만 나타나며 결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준형식 삼단논법에서는 대전제가 먼저 진술되고 그 다음에 소전제가 진술된다. 그러나 대전제와 소전제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념과 소개념의 포함 여부로 결정된다.¹⁵⁾

주결륜의 강연은 처음 시작부터 의미심장했다. 이미 알려진 참인 명제들(전제)인 자신의 성공과 특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명제(결론)인 성공에 있어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특기임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4) 마무리

마무리는 연설문의 내용을 간명하게 요약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단계로 청중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¹⁶⁾ 주결륜 강연에서는 [단락23]에서 [단락24]까지가 마무리에 해당한다.

[단락23] 然後，在這邊鼓勵大家就是，找尋自己的那一點跟大家的不一樣，去把它放大。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남들과는 다른 바로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 펼쳐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락24] 今天的演講到此結束，謝謝！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을 감동시키는 파토스(pathos)적 요소들이 이미 강연내용 중간 중간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주결륜 강연의 마무리는 매우 짧고 간결하다. 특히, [단락23]에서는 얼거리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짧지만 어느 정도 청중들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감동의 요소가 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럼, 그의 강연에서 파토스(pathos)적 요

15) 김중영(2015: 142-144)은 논증이란 연사 논리력을 돋보이게 하는 증명방법으로서 크게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고 개연에 입각해 추론하는 삼단논법을 대표적인 연역법으로 설명한다.

16) 백미숙, 「연설문의 들머리와 마무리 구조 분석」, 『독어학』 vol.5, 2002년, 258쪽 참조.

소는 어느 부분에 있었는가? 그 요소를 찾으려면, 먼저 들머리와 얼거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는 강연 시작부분에서 이미 관중들에게 큰 박수를 자아냈다. 바로 [단락3]~[단락4], 그리고, [단락6]이 그 부분이다.

[단락3] 人都要有夢想, 其實我跟大家一樣啊, 我覺得自己就是非常平凡, 只是學了點兒音樂而已。學了這些音樂呢, 最後能夠站在這個舞台演講, 也不容易啊。因為我沒有考上大學, 但是我卻跟你們演講, 你們會不會覺得有點奇怪?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해요. 저도 여러분처럼, 제 자신이 사실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음악을 공부했을 뿐인데, 이렇게 음악을 공부한 것으로 이런 무대에 서서 강연을 한다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네요. 여러분이 보기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단락4] 方文山也才讀過小學而已。不過, 他寫的東西卻能夠到教材裏面。這時候是不是該來點掌聲啊?

방문산(方文山) 씨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쓴 작품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었잖아요. 이 시점에서 박수 좀 나와 줘야하지 않을까요?

[단락4]는 [단락 3]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예증으로 주걸륜 본인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일류대인 북경대학에서 강연하게 됨을, 그리고 방문산은 초등학교만 나와서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으로 내용의 앞뒤 대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들을 감동시켰고, 실제로 동영상에서도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았던 부분으로 청중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충분히 일으켰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 할 것이다. [단락6]도 마찬가지이다.

[단락6] 如果我被好好的關在那邊, 我沒有去打球, 我現在怎麼拍〈大籃球〉是吧? 如果那時候沒有學琴, 我現在怎麼拍〈不能說的秘密〉對吧? 那時候如果不喜歡看這些武術的電影, 我怎麼拍〈青蜂俠〉對吧?

[단락6]은 '如果'라는 조건절에 부정과 뒷부분에 이어지는 설의법을 사용하며 청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부분이다. 특히, 이 부분 또한 '평범한 것'에서 '성공의 결과물'을 대비적으로 사용하여 감정 호소에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해내었다. 그밖에 밝히기 부분에서는 유머로써 청중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분위기 전환을 시키기도 했다. 총 다섯 부분으로 그 중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단락10] 我還蟻居在他的錄音室, 給我衣服穿, 給我吃的, 並沒有給我車子, ~

저는 그의 녹음실에서 신세를 졌어요. 그는 저에게 입을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었지요. 그런데 차는 주지 않더라고요.

'給我衣服穿, 給我吃的' 하면서 뭔가 다 제공이 될 듯 했지만, 마지막에 '並沒有給~'라는 반전을 사용하여 청중들에게 큰 웃음을 자아내었다. 이렇듯 그는 감동과 웃음을 교차시키며, 청중들과 함께 교감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의 강연 중 나온 박수의 횟수는 15회로 청중은 강연자에 매료되어 강연내용에 모두 공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표현

표현은 수사학 5대 영역 중 세 번째 단계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수사법을 이용하여 언어적 표출을 하는 과정이다. 수사방법이란 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과 공감을 얻기 위한 언어 표출방식으로써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에 일탈한 특별한 구조형식을 갖는 방법이다.¹⁷⁾ 즉, 작가가 그의 작품에서 작가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최상의 표현방법이다. 또한, 연설자의 입장에서 연설의 수사법이란 자신의 연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청중을 설득할 수 있도록 언어를 표출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의미이다.

17) 나민구, 『중국수사학』, 한성문화, 2006년, 43쪽 참조.

주걸륜의 강연텍스트에서 그는 주로 자신의 성공과정을 작품들을 통해 이야기 하면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간접적으로 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강연에 주로 사용된 수사법으로는 ‘反復과 排比’, ‘설의법’, ‘점층법’, 그리고, ‘비유법’이 있다. 이 수사법을 기준으로 아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반복과 배비

《漢語修辭格大辭典》에서는 “反復은 동일한 단어나 구, 문장을 중복 사용하는 수사법으로 반복법을 운용함으로써 어감을 강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다.”¹⁸⁾라고 정의하였고, 排比는 “3개 혹은 3개 이상의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단어나 문장으로써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수사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⁹⁾

또한, 반복의 종류에는 연속반복과 간격반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연속반복은 반복될 부분을 연속적으로 붙여 쓰기를 하는 것(중첩: 白白白)이고, 연속하여 쓰되 붙여 쓰지 않는 것(白·白·白)을 말한다. 간격반복은 문장이 곧바로 반복되지 않고 다른 문장이 일정정도 진행된 후에 다시 한차례 더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²⁰⁾

[단락6] 如果我被好好的關在那邊, 我沒有去打球, 我現在怎麼拍〈大籃球〉是吧? 如果那時候沒有學琴, 我現在怎麼拍〈不能說的秘密〉對吧? 那時候如果不喜歡看這些武術的電影, 我怎麼拍〈青蜂俠〉對吧?

상기 예문은 동일한 구조가 3개 이상 출현하고 있어 전형적인 排比를 보여주고

18) “重復使用同一詞語, 句子或句群。運用反復可以加強語勢, 抒發強烈的感情, 表達深刻的思想。”

唐松波·黃建霖, 《漢語修辭學格大詞典》,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89년, 300쪽.

19) “用三個或三個以上結構相同或相似, 語氣一致的詞組或句子, 以表達相關的內容。”

唐松波·黃建霖, 《漢語修辭學格大詞典》,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89년, 275쪽.

20) 나민구, 『중국수사학』, 한성문화, 2006년, 53-54쪽 참조.

있다. 또한, '如果' 단어를 간격적으로 반복하면서, 3문장 모두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부정어 '不'를 조건절에 넣고, 다시 공통적으로 '怎麼'를 이용하여 반문의 형태를 취해서, 청자로 하여금 공감과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써, 말하는 이의 감정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락5] 我覺得厲害的人, 我覺得不平凡的人, 並不是書要念得多好, 我覺得他耍有一技之長。

그래서 제 생각은 대단하거나 비범한 사람이 공부를 잘 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잘 하는 특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예문 역시 '我覺得~'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개인적인 견해를 같은 구조의 문장으로 排比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문두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我覺得~'로 말하는 이의 자유로운 화법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문장의 마지막 부분인 '一技之長'을 도출해 내기 위해, '긍정-부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묘사대상을 부각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런 대비는 문장의 색채를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다음 예시도 보도록 하겠다.

[단락14] 我也很感謝當時沒有用我歌曲的那些歌手。

저도 그 당시에 제 노래를 쓰지 않은 가수들에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단락15] 可以感謝我的外婆。

외할머니께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단락18] 然後拍了〈黃金甲〉之後呢, 也感謝這個張藝謀導演。

그런 다음, 영화 〈황후花-黃金甲〉를 찍고 나서, 장예모(張藝謀) 감독한테 감사했어요.

상기 예문은 세 단락에서 단락별로 한 부분씩 들어가는 문장이 간격반복을 한 것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感謝'가 단락 별로 세 번 반복되고 있지만, '感謝'

해야 할 대상들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感謝’의 대상은 주걸륜이 무명 당시 썼던 노래를 사용하지 않은 그때 그 시절 가수들에게 반어적으로 쓴 표현으로, 그 때는 그를 무시하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본인보다 못하다는 것을 풍자하면서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게 풀어서 청자들에게 공감을 주었다. 두 번째 ‘感謝’의 대상은 내부적 인물로서 그를 성장하게 했던 외할머니이다. 주걸륜은 앨범을 여러 장 내고 시상식에 가면서, 내심 기대에 들떠 외할머니를 모시고 가게 된다. 그러나 그토록 기대했던 상을 타지 못하면서, 큰 실망과 함께 성공을 해서 외할머니에게 보여줘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게 된다. 이로써 외할머니가 그의 성공에 내부적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세 번째 ‘感謝’의 대상은 외부적인 인물로서 그에게 ‘中國風’이라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도록 해준 장예모감독이다. 그는 장예모 감독의 영화 <황후花-黃金甲>(2008)를 찍고, 장 감독으로부터, 엔딩 크레디트로 이 영화와 어울리는 중국적인 스타일의 노래를 의뢰받는다. 이것으로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팬 층이 다양하게 되어 지금의 주걸륜을 만들었다고 서술하였다.

2) 설의

『국어사전』에서는 설의법(設疑法)을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그 사실을 강조하는 수사법”으로 정의하고, 독자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²¹⁾ 중국수사법에서는 ‘設問’이라고 하는데, 《漢語修辭格大辭典》에서는 ‘고의로 의심스럽지 않은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 혹은 독자로부터 하여금 생각하여 이해하게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²²⁾ 즉, 문답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하거나 감정적 표현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提問’은 “설명을 목적으로 의문형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激問’은 “감탄의 효과

2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국어대사전』, 창작마을, 2009년, 3431쪽.

22) 故作無疑之問, 然後自己回答; 或者故作疑問, 自己不答, 讓對方或讀者去思索體回。

唐松波·黃建森, 《漢語修辭學格大詞典》,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89년, 392쪽.

를 주기 위해 의문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때의 의문형은 단지 수사적 효과만을 나타내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²³⁾

주결륜 강연에서도 이러한 수사법의 표현 방법인 ‘設問’ 형식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는 이런 표현법을 적시적기에 사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끌었고, 청중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 강연텍스트를 분석해보면, 그가 사용한 설의법은 총 18번으로, 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설문에 대한 정의에서 설명을 목적으로 한 ‘提問’과 감탄의 효과를 위한 ‘激問’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 예시를 보도록 하자.

[단락8] 這代表說我是一個很怎麼樣的人?
이것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요?

[단락15] 有一次帶了外婆去參加頒獎典禮, 我覺得至少一項, 上台可以講話吧, 對不對?
한번은 외할머니를 모시고 시상식에 참석했어요. 제 생각엔 ‘적어도 상 한개 정도는 받아 무대에 올라가서 말 할 수 있겠지’ 했어요. 그렇잖아요?

상기 예시는 모두 ‘設問’ 형식에서의 설명을 목적으로 한 ‘提問’으로 간주하여 선택해 보았다. 첫 번째 예시에서 ‘這代表說我是一個很怎麼樣的人?’은 앞에 자신의 특징을 청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일화를 들었고, 이 이야기의 종결로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특징을 알렸다. 일화를 들어 분산되었던 화자의 관심을 끄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였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또 다른 일화를 제시하며, 문두에 사용한 설의법이다. 또 다른 화제에 대해 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고자, ‘~吧, 對不對?’를 사용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새로운 내용을 열고자, 즉,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提問’의 설의법이다.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자.

23) 나민구·김혜원 역 高辛勇 저 (2006), 「수사학」, 『中國語文論譯叢刊』 Vol 5. 〈부록〉 중국수사방법 목록 중 첫 번째 ‘設問’ 참고.

[단락6] 如果我被好好的關在那邊, 我沒有去打球, 我現在怎麼拍〈大籃球〉是吧? 如果那時候沒有學琴, 我現在怎麼拍〈不能說的秘密〉對吧? 那時候如果不喜歡看這些武術的電影, 我怎麼拍〈青蜂俠〉對吧?

[단락8] 這時候應該要來點掌聲, 是吧?
이 시점에서 박수 좀 나와 줘야하지 않나요?

[단락22] 拍出來, 大家是不是嚇一跳了, 是不是了?
영화 나오고 나서, 모두들 깜짝 놀라셨죠? 그렇지 않아요?

상기 예시는 모두 감탄의 효과를 위한 ‘激問’의 형식으로 보였다. 먼저, 그 형식을 보면, 문미에 ‘是吧?’, ‘對吧?’, ‘是不是了?’를 사용한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답이 뻔하고, 굳이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또한, 청자들도 그의 이런 의문의 형식에서 ‘是!’나 ‘對!’ 등의 대답이 아닌 박수로써 대답을 대신 해주었다. 이런 설의법은 상대방의 주의를 끌어 감정에 호소하고 판단을 촉구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도를 정감 있게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며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답이 뻔한 ‘감탄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 점층

점층법이란 수사법 중 강조법의 하나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혀 그 뜻을 강조하는 표현기법이다.²⁴⁾ 작고 약하고 좁은 것에서 크고 강하고 넓은 것으로 표현을 확대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점층법 또한 독자를 설득하거나 감동을 주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되는 수사법이다. 주걸륜 강연 텍스트에서는 이런 점층법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락19] 我拍了第一支MV之後, 拍了第二支MV, 拍了十支MV, 拍了三

24) 정재영, 『eduspa가 떴다, 국어2 문학』, 박문각, 2012년, 31쪽 참고.

十支MV, 到現在累計, 我覺得應該有七八十支MV了。

저의 첫 번째 뮤직비디오를 찍고 나서, 두 번째를 찍고, 이렇게 열 번째, 스무 번째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요, 지금까지 찍은 것이 아마 7, 80 개는 될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주결륜의 일화에서 그가 MV²⁵⁾를 찍기 시작했던 노력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점층법을 사용하였다. 상기 문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문장 앞에 나오는 내용으로, MV의 처음 시작은 후배들을 실험용 쥐로 이용하여 찍어보았는데, 효과가 괜찮게 나와, 자신이 직접 첫 MV를 찍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과정을 '第一支MV'부터 시작하여, '第二支MV → 十支MV → 二十支MV → 七八十支MV' 까지 굉장히 많은 수량의 MV를 찍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경험과 경력을 쌓아왔다 라는 것 그리고 '영화감독'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렸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단락18] 很多差不多我蠻常遇到四五十歲, 五六十歲, 還有一些老奶奶說~

저의 40,50대, 50,60대 혹은 더 나이 드신 할머니들까지도~

이 문장에서도 점층법을 볼 수 있다. 나이 어린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주결륜의 팬 층이 굉장히 두텁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설명하기 위해, '四五十歲 → 五六十歲 → 還有一些老奶奶'와 같이 말하며, 점층적인 수(數)의 증가로 점층적 수사법을 잘 표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량적인 점층법을 예로 들었다. 다음은 문장 구조적으로 점층법을 사용한 예를 보도록 하겠다.

[단락12] 反正你唱的也不清楚, 反正他也不知道你唱什麼。

어쨌든 네 노래도 분명하지 않잖아, 어찌되었거나 그도 네가 무엇을 부르는지 모를 거야.

25) MV: Music Video

[단락21] 我就想說, 有一天一定要寫歌給他。果然, 張學友唱了我的歌曲, 而且還跟他一起同台表演, ~

어느 날 그에게 반드시 곡을 써줘야지 했었어요. 결국엔 장학우가 저의 노래를 불렀고, 게다가 그와 함께 같은 무대에서 공연까지 하게 되었어요.

[단락12]에서는 앞뒤 구조는 같이하어 리듬감도 살리면서, ‘你’와 ‘他’라는 인칭의 변화로써 의미를 점층적으로 사용한 예이다. [단락21]에서는 ‘A, 而且(還)B’의 접속사를 통하여 점층적인 표현을 하였고, 이로써 의미를 더욱 심화시켜 주었다.

4) 비유

比喩의 사전 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물의 비슷한 점을 통하여 ‘을’사물로 ‘갑’사물을 비교한다. 즉 ‘을’사물을 이용하여 본질이 다르고 비슷한 점이 있는 ‘갑’사물을 표시하는 것이다.”²⁶⁾ 서양수사학에서 ‘Metaphor’가 가장 대표적인 수사법이듯 이에 대응할 수 있는 比喩는 중국인의 언어생활 속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²⁷⁾ 주걸륜 강연에서는 두 군데에서 이런 비유법을 볼 수 있다.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자.

[단락13] 這個師姐當時是女神呢。
이 선배는 그때 당시 여신이었어요.

[단락19] 先拍了第一支MV。但是, 是拿我的師弟當做白老鼠, 來試驗一下。
첫 번째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먼저 제 후배를 실험용 쥐로 삼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상기 예시는 모두 비유체를 통하여 상징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26) “通過兩類不同事物的相似點, 用乙事物來比甲事物。即用乙事物來揭示與其本質不同而又有相似之處的甲事物。”

唐松波·黃建霖, 《漢語修辭學格大詞典》,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89년, 392쪽.

27) 나민구, 『중국수사학』, 한성문화, 2006년, 46쪽 참조.

예시는 ‘女神(여신)’이라는 비유체를 사용하여 이름답고 이상적인 여성을 상징해 주기 위해 사용한 비유법이다. 두 번째 예시도 실험용 쥐를 상징하는 ‘白老鼠(흰색 쥐)’라는 비유체를 사용하여 주결륜 자신이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 후배들이 이용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5. 암기

암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기억’이라고 하며, 즉, 발표할 때 떠올릴 목적으로 연설의 내용과 형식을 저장하는 과정이다.²⁸⁾ 또한, 수사학의 5대 영역 중 네 번째 단계로, 연설자가 ‘착상, 배열, 표현’의 세 가지 과정을 머릿속에서 잘 기억해내는 과정이다. 주결륜의 강연에서는 강연 원고나 메모 등을 따로 준비하여 발표 할 때 그 원고를 참고해가며 강연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원고 없이 먼저, 논거를 제시하고, 논증으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학창시절부터 무명의 작곡시절, 데뷔시절 등 일련의 시간 순으로 그 내용을 배열하고, 다시, 그의 히트곡들이 나온 일화들을 하나씩 엮어서 전체의 성공기로 완성시켜 나갔다. 본인의 이런 실제 겪었던 경험들을 머릿속에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연 중간에 내용을 잊어버려 잠시 쓴다거나, 말거리를 찾기 위해 생각하는 등의 그런 불필요한 휴지(休止)는 없었다. 원고 없이도 여러 일화들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 마치 옆에서 친구와 수다를 즐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청자들에게 더욱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6. 발표

발표는 착상, 배열, 표현, 기억에 이어 나오는 마지막 과정으로서, 텍스트를 목소리, 표정, 몸짓으로 구현하는 “연설가의 실천”이다.²⁹⁾ 발표 영역에는 언어적 요

28) 양태중, 『수사학이 있다』, 유로서적, 2009년, 232쪽 참조.

29) 양태중, 『수사학이 있다』, 서울: 유로서적, 2009년, 241쪽 참조.

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있다.

1) 언어적 요소

연설에서 언어적 요소란 연설자의 음성을 통한 언어로 전달하는 정보나 내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용언어, 발음의 정확성, 말의 속도 등이 포함된다. 연설을 포함한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의사 전달 수단이다. 일단, 먼저 주결륜이 사용한 언어는 중국어의 표준어인 ‘普通話(표준어)’이다. 말하기 속도는 예전에 그가 부르는 빠른 랩의 이미지와는 다른, 또한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다소 빠른 말 속도와는 다른 이미지로, 비교적 연설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 속도를 선택하였고, 차분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청중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더욱이 그의 어투는 일상적으로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은 어투로 마치 옆에서 나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듯한 친근함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밝히기 부분에서는 말하기 속도가 다소 빨라지고, 본래 주결륜만의 ‘웅얼웅얼’ 하는 듯한 말하기 습관도 나오기도 하였다. 물론 이것은 발음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만의 개성이 될 수 있는 장점의 요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주결륜의 말투만 듣더라도 그가 하는 말인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개성 있는 말투이기 때문이다. 강연에서의 말하기 톤은 전반적으로 저음이었지만, 묵직하거나 중후한 그런 무거운 느낌의 톤이 아니어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일화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인용할 때는 직접화법을 사용하였는데, 현장감 있는 표정으로 목소리 톤을 달리하여, 연기자다운 면모까지도 잘 보여주었다. 특히, 감동의 요소를 전달할 때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박수를 요구하며, 청중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하였다. 특히, 강조를 요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느린 속도로 중국의 전통 수사법인 배비와 반복, 대비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연설의 효과를 높여주었다. 또한 새로운 화제로 들어가기 전에는 잠시 휴지를 두고 박수로써 주위를 환기시키고 연설을 재정비하는 모습 등의 노련함도 보여주었다. 주결륜은 청중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 ‘我(나)’에서 ‘你(너)’라는 인칭

대명사의 변화를 주었는데, 이것은 청중과 같은 시점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수법으로 적시적기에 잘 사용해 주었다. 목소리나 음색이 풍부하고 휴지가 정상일 경우, 말하는 사람의 신뢰감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러한 언어적 요소는 비언어적 요소와 함께 어우러져 그 효과를 배로 높여줄 수 있다.

2) 비언어적 요소

연설에서 비언어적 요소란 언어적 요소 이외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연설자의 복장, 표정, 태도, 제스처, 시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경쾌한 음악이 흐르며, 관중석에 있는 북경대생들이 모두 기립박수로써 그의 등장을 환영해 주는 동안, 주결륜이 연단에 오르기까지는 약 20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먼저 그는 관중들과 아이컨택을 시도하며, ‘各位北大大同學們(북경대학교 학생 여러분)’을 외친 후, 잠시 여운을 두었다가, 힘차게 ‘你們好嗎(안녕하세요)?’를 외쳤지만, 이내 다소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시선을 잠시 피하다가, 다시 청중으로 돌아온다. 이런 일련의 모습으로 그의 긴장된 심리를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평범한 사람이 남들 앞에 서면 그러하듯, 그에게서도 그런 평범한 인간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 강연의 비언어적 요소로 첫 번째 특징은 주결륜의 복장이다. 그는 평상시 약세서리 등 과장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잘 나오지만, 이 북경대 강연에서는 사천성 지진피해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와 강연이라는 다소 진지한 분위기를 인식해서 인지 평소 때와 다른 소박함을 보여주었다. 상·하의 모두 검은 색의 깔끔한 복장으로 차분한 느낌까지 연출해 주었다. 이런 검은 색의 연출은 청중들에게 말이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로써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두 번째 특징으로 그의 제스처를 살펴보면 하겠다. 그는 강연 내내 마이크를 양손으로 바꾸어 들며, 마이크를 들지 않은 다른 한 손은 자신의 몸을 감싸거나, 허리를 짚거나, 혹은, 강조의 부분에서는 손바닥을 올린다거나, 감정이나 전제로 말하는 부분에서는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펴서 다운시키는 등 다른 경직된 연설과는 다르게 굉장히 자유롭고

다양한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손만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몸도 강연 내내 제자리에서 좌우로 흔들거린다거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때는 작은 보폭으로 반발자국 정도 앞으로 나오는 등 자유로움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그의 표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무뎠던 표정에서 어두운 내용일 때는 고개를 살짝 아래로 향하며 찡그리기도 하고, 자신의 유머에 청중들이 웃을 때는 함께 웃어주기도 하며, 남의 대화를 인용하여 직접화법으로 표현할 때는 딴 사람의 표정으로도 잠시 변화가 되는 등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내용과 상황에 맞추어 표정에 변화를 두어 강연의 단조로움을 피했다. 네 번째, 음향효과를 살펴보면, 그의 강연에서 사용한 각각의 일화들은 ‘사건-과정-결과’의 패턴 진행으로, 결과물은 그의 인기 곡이었다. 그러다보니 강연 중간 중간에 그 일화와 연관된 배경음악을 넣어, 강연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켰다.

7. 나오는 말

본고는 중국 스타 주결륜이 북경대학교에서 진행했던 강연을 대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착상(invention) - 배열(disposition) - 표현(elocution) - 암기(memory) - 발표(action)’ 순서에 따라 그 수사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결륜의 강연은 식장연설 이지만, 청중의 득과 실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정치적 연설의 특징을 볼 수 있었다. 또한, ‘一技之長(특기)’이라는 주제로 자신이 겪어온 일화들을 통해 논증해가는 과정에서 배열 부분에서는 그 내용의 구성들이 ‘사건 - 과정 - 결과’라는 패턴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배열 부분의 스토리 또한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의 흐름을 따랐으며, 연설의 구조도 ‘들머리, 열거리, 밝히기, 마무리’ 구조로 구분이 가능하였고, 각 영역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었다. 표현된 수사법으로는 ‘반복과 배비’, ‘설의’, ‘점층’, ‘비유’ 등이 사용되었고, 이런 수사법을 통해 논점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발표에 있어서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살펴보았는데, 본

래 주결륜만의 '웅얼웅얼'하는 듯한 말하기 습관에서 연사로써의 말하기 표현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그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부감 보다는 오히려 청중들에게 친근감을 주었고, 저음의 톤도 무게감보다는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연설의 손동작이 좀 산만하긴 하였으나, 그런 자유로움을 통해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청중과 소통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또한 그의 개성적인 말투와 다소 절제된 표정에서 나오는 유머러스함이 청중들에게 더 큰 매력을 주었다.

중국 CCTV에서 방영 중인 '開講啦'를 통해 청소년 특집으로 진행된 본 강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 성공을 위해 반복되는 시행착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중국의 산아정책인 '1가정 1자녀 낳기'에서 '소황제(小皇帝)'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한 자녀의 교육에 집중이 된 중국은 자연스럽게 '학력 중시'라는 풍토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결륜의 강연은 학력의 중요성을 타파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소질, 능력을 잘 키우자는 내용으로 젊은이들에게 시사 하는바가 컸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수사학의 주된 목적이었던 '설득'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강연을 평가해본다면, 그는 수사학적으로 연설 목적을 유효적절하게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參考文獻〉

- 강태완·김은정,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수사적 특징과 역할규정」 『社會科學研究』 第30輯 第2號, 2004년.
- 김종영,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서울, 진성북스, 2015년.
- 김현국, 「연설문이 문체 연구」, 『청람어문교육』 23집, 2001년.
- 高辛勇 著, 나민구·김혜원 역, 「수사학」, 『中國語文論譯叢刊』 Vol 5, 2006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국어사전』, 서울, 창작마을, 2009년.
- 나민구, 『중국수사학』, 서울, 한성문화, 2006년
- _____. 최형권, 「시진핑(習近平) 연설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中國研究』 第60卷,

2013년.

박성희, 「대통령 취임 연설의 제의적(Epideictic) 특성 수사 분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11호, 2009년.

백미숙, 「연설문의 들머리와 마무리 구조 분석」, 『독어학』 vol.5, 2002년.

양태중,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2년.

_____, 『수사학이 있다』, 서울, 유로서적, 2009년.

이범수·김민영, 「연설텍스트의 수사적 체계 분석」, 『수사학』 제4집, 2000년.

이재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의 수사학적 분석-키케로의 《생각의 수사학》을 중심으로」, 『텍스트 언어학』 제35집, 2013년.

정채영, 『eduspa가 떴다, 국어2 비문학』, 서울, 박문각, 2012년.

_____, 『eduspa가 떴다, 국어2 문학』, 서울, 박문각, 2012년.

Christian Plantin 著, 장인봉 譯, 『Essais sur l'argumentation: 논증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년.

陳望道, 《修辭學發凡》,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7〔1976〕年.

馬立杰, 〈奧巴馬連任就職演講的銜接手段分析〉, 《科技信息》, 13期, 2013年.

唐松波·黃建霖, 《漢語修辭學格大詞典》,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89年.

〈中文提要〉

周杰倫 “你可以不平凡” 演講的修辭分析

羅敏球·裴景珍 (韓國外大)

本文以中国明星周杰伦在北京大学的演讲为研究对象, 从亚里斯多德提出的“联想(invention)-排列(disposition)-表现(elocution)-记忆(memory)-发表(action)”分析其修辞方面的特征。分析结果是, 周杰伦此次的演讲, 没有所谓的“仪式演说”的种种属性, 由于演讲的特点是要求听众判断其得与失, 因此可以得出本次演讲是一场更倾向于政治性的演讲。本次演讲的关键词可以定位在“一技之长”, 通过自己亲身经历的见闻来论证, 可以看出, 在排列这一环节是以排列部分的故事是以时间为顺序的, 演讲的结构也是从“引说、主体框架、

阐述、结语”这几个方面表现环节中所使用的修辞方法有反复和排比、设疑法、渐层法、比喻法等，通过这些修辞方法的使用使论点更加具体化了。发表这一部分是通过语言要素和非语言要素的分析来论述的，周杰伦原来那种“杰伦式说话吐字不清楚”的习惯就演讲而言是有些许遗憾的，但正是这种个性的方式给听众带来了亲切感而不是反感；那种低沉的语调有的也只是安全感并非沉重感。演讲时周杰伦手上的动作虽然显得过于散漫，但也正是这种自由轻松随便的动作才避免了单调的乏味，和听众在进行交流沟通时并无大碍。

关键词：周杰伦，演讲，修辞，你可以不平凡，北京大

이 논문은 2015년 4월 8일에 접수되어 2015년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5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